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'15. 3. 18.(수)	담당부서	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기재부 경제재정성과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
담당과장	신준호(02-2110-2520) 고종안(044-215-5350) 천영길(044-203-4510)	담 당 자	정재욱 사무관(02-2110-2522) 강석원 사무관(044-215-5351) 민문기 사무관(044-203-4512)

미래부·기재부·산업부 '정부R&D혁신방안' 수립 본격추진

-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세부추진대책 상정·발표 -

□ 어려운 재정여건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**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R&D투자를 확대**하여 왔다.

○ **2013년 R&D 투자규모**는 미국, 일본, 중국, 독일, 프랑스에 이어 **세계 6위**이며, **GDP 대비 비중(4.15%)**으로는 **세계 1위 수준**이다.

* R&D 투자 규모(억$, '13) : 미 4,535, 일 1,990, 중 1,631, 독 1,020, 프 598, **한 542**

* GDP 대비 R&D 투자 비중(%, '13): 이스라엘 3.93(2위), 핀란드 3.55(3위), 일본 3.35(4위)

* '11~'13 정부 R&D 증가율(%) : **韓 7.3**, 美 △3.8, 日 1.5, 獨 2.7, 佛 △5.4

□ 이같은 투자확대로 인해 논문,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, **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**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○ **2012년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,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**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나,

- SCI 논문 피인용도(세계 31위), 기술무역수지(OECD 최하위권), 연구생산성(미국의 1/3) 등 **질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.**

* 기술무역수지(억$) : 美 359, 日 285, 英 226, 獨 84, **韓 △57**

* 대학·출연연 연구생산성(기술료수입/R&D투자, %, '12) : **韓 1.5**, 美 3.9

○ 또한, **부처간 협업 미흡 및 관리소홀**로 인해 셀프기획·셀프평가, **R&D자금 부정수급·부정유용*** 등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.

* 지난 5년간('08~'12) 감사원 감사 결과 총 548건의 비리가 지적되었으며, 이 중 부정사용·관리부실 등 집행단계 비리가 387건(71%)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음.

□ **연구자, 기업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** ('14.10월 미래부, 1,294명 응답) 결과,

○ 국가 R&D 리더십 부재, 부처간·전문관리기관간·출연연간 칸막이, 시장과 괴리된 기획, 논문·특허 등 양적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.

□ **기재부, 미래부,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정부 R&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.**

○ **미래부**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**장관 주재**로 산·학·연·언론 등과 **3차례 R&D혁신 토론회**,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실시하였다.

○ 기재부는 심층평가에 착수('14.11.27(목))하고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과심, 전문관리기관, 출연연, 기업 등 주요 R&D추진주체별로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□ 미래부, 기재부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**정부 R&D 혁신 주요 방향**은 다음과 같다.

① **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'과제' 중심에서 '연구자' 중심으로 전환한다.**

-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·지원, **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지원**

② **응용·개발연구는 '공급자' 중심에서 '수요자' 중심으로 개선한다.**

- 과제기획시 시장수요 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,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

③ **산·학·연 간 '무한 과제수주 경쟁'을 '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'의 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.**

- 출연(연)의 민간수탁 활성화 및 PBS 비중 조정,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원 강화, 대학의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·기업부설연구소 유치,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

④ **'성과와 무관한 '양' 중심 평가체계를 '질' 중심의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.**

-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, 평가대상 사업의 **SCI건수 지표 활용률 점진 축소**

-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**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**하고, **성실실패제도 적용·확대**

⑤ **기존의 단순취합형 '단편적' 투자체계를 '전략에 따른 체계적' 투자체계로 전환한다.**

- **중장기 R&D 투자전략**을 올해 말까지 수립

-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도로 재난·재해, 민군기술협력 등 **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**

⑥ **'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'을 '국제적 R&D협업'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한다.**

- 국제협력의 유사·중복 방지 및 연계시너지 제고를 위해 **국제협력 정보·성과시스템** 구축,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마련

⑦ **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,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한다.**

- 보고서 감축,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을 3종(대학, 공공연, 기업)으로 통합·정비, R&D과제신청 등 전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

□ 미래부, 기재부, 산업부는 이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**세부 추진대책을 마련**하여 **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·발표**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과 천영길과장(☎ 044-203-4510), 민문기 사무관(☎ 044-203-4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